



# 공익 변론 사례 공유

## [범죄 사실]

- 피고인은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이따가 볼 분' 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상대방에게 성관계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만남을 제안하여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니 상대방은 경찰이었고, 피고인을 단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채팅 어플리케이션]

진솔한 대화상대가 되어주세요	쪽지쓰기			
재난 영화 같이 볼 사람~	쪽지쓰기			
아직 화요일이라니~	쪽지쓰기			
이따가 볼 분	쪽지쓰기			
넌 놀 분 픽업 가능~	쪽지쓰기			
주말에 잠깐~				
전체	지역	동네	근처	내꺼

- 1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1) 이 사건의 실질은 '성매매 미수' 이고 성매매 미수의 처벌규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 관련 규정은 성매매 업소나 포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였고, 3) 성매매 기수에 이르렀을 때 벌칙 규정 상 벌금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상에 관하여서는 1) 피고인은 초범이며 미성년자를 갖 벗어난 어린 나이에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고자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2) 벌금 5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 3) 자립지원관 등의 지원으로 이제서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제빵사의 꿈을 키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 또한,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에서 경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은 성판매자에게만 불리한 함정 수사라며 경찰의 불합리한 성매매 여성 단속 관행에 대하여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벌금 납부의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무죄나 선고유예를 위하여 한 번 더 다뤄 보자는 담당 변호사의 설득으로 피고인은 항소를하기로 결심했다.

-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1심의 주장을 유지하며 1)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및 2) 이 사건 처벌규정은 성매매 중간매개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과 같이 직접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3)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사 사안의 다른 피고인들보다 훨씬 중한 형을 받았다는 주장을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감사인사

변호사님들께서 열심히 고생해 주신 덕분에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생일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벌금 5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전과까지 없애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는 동안 불안했는데, 이제 모두 끝났으니 꿈을 위해 노력하며 저도 받은 것을 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선 변호사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는데 나눔과이음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았고, 본건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상황에 몰입하여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 피고인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과 이음을 실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하림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조용히 기쁨의 탄성을 질렀던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익소송 참여를 계기로 공익활동이야 말로 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매우 근사하고 보람찬 경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신 나눔과 이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법인 내에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THANK YOU**

---

서유진  
02 - 316- 4058  
yjseo@shinkim.com